

한국 프로시론 형성 배경 고찰

현 철 중*

차 례

- I. 프롤로그
- II. 1920년대 전후 일본의 시대적 현실과 문단상황
- III. 1920년대 전후 한국의 시대적 현실과 문단상황
- IV. 사회주의 수용과 프로시론의 등장
- 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이 글은 비교문학적 입장에서 같은 시기 일본과 한국의 시대적, 문단적 상황을 서로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프로시론의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개인과 사회, 주관과 객관, 독자성과 보편성 등과 같은 것들의 개념은 상호관계를 고려치 않고 개별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아직까지는 상호 비교 개념 없이 간단하면서도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과 이론이 진전될수록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기존의 해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양상마저 보인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문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에 대한 개념과 접근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그 중 하나가 비교문학적 관점이다. 비교문학은 문화간의 다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를 표방한다. 비교문학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세계문학이란 전체성 속에서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민족문학의 주체성을 수용함으로써 세계 속의 민족문학, 민족문학 속의 세계 문학, 즉 문학의 범세계성을 추구하자는 의도가 서려 있다. 결국 민족문학을 세계문학 속의 등가적 한 구성 요소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교문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서구, 일본, 중국 등의 문학이 한국문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국문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임도 물론이다. 문학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본다 하더라도 각 영역들은 국내외적으로 상호 영향과 수용의 관계를 갖고 있어 언제나 의미의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하며 그러한 상호 영향 관계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 요소로 인류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론의 측면을 유념하면 프로시론을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그 본질을 잘 살필 수 있다. 프로문학에서 특이하게 드러난 비평 논쟁들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변화 및 그들의 위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표현 양상, 곧 논의 쟁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은 담론주의자들이 언어 체계나 구조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제도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점과 일치한다. 기존 권력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저항과 계급투쟁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실천적 노력 등은 프로시론의 전개 과정 속에 담겨 있으며,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실천은 프로시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 즉 비교문학적 관점과 담론의 측면을 적용해 보면 1920~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특수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본다. 특히 줄곧 논의되어

은 이식문화론, 번안비평, 국제적 추수주의라는 논의 쟁점의 심층에는 서구나 일본 문학의 절대적 영향, 바꿔 말하면 주체 의식을 소홀히 다루려는 잠재의식이 서려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하리란 생각이다. 특히 탈자본주의, 탈구조주의, 탈공산주의 시대를 맞는 요즘, 이성과 산업 그리고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실에서 인류사와 문학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과거의 역사나 가치 평가에 대해 언제나 새로운 관점의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20~30년대 문학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은 일제의 영향, 남북의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 남북 분단과 문학의 독자성에 경도됨 그리고 서구적 이론의 준거와 평가 등으로 가치절하시킨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문예부흥 이래 서구시의 중요 전통을 말하게 되는 실속 있는 시적 영향의 역사는 불안 및 자구책에서 비롯되는 풍자의 역사, 왜곡의 역사, 그것 없이는 그러한 근대시가 존재할 수 없었던 예상 밖의 의도적인 수정의 역사¹⁾라는 주장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혹은 관점의 변화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한 점들을 유념하면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연구 과제가 될 한국 프로시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규명의 전초로서, 첫째로 1920년대 전후의 한국과 일본의 시대적 현실 상황, 둘째는 한국과 일본의 문단 상황, 셋째는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 수용과 프로시론의 대두 배경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1920년대 전후 일본의 시대적 현실과 문단 상황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가치 평가의 변화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1) Bloom, *The Anxiety of Influence, A Theory of Poetr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30면, 윤호병, 『비교문학』(1994), 21면.

서 대립과 충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날 수 있다. 대립과 충돌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설령 대립과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 지향 속에는 과거 혹은 현재와 다른 면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노출 아니면 내포되기 때문에 혼란과 기대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립과 충돌, 혼란과 기대를 긍정적, 부정적 일면의 시각을 가지고 단적으로 가치 평가하는 일은 어쩌면 흑백 논리의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명하고 경쾌한 해명을 소망하고 있다.

서구와의 접촉에 의해서 비롯된 일본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마찬가지다. 대립과 충돌, 혼란과 기대, 외연과 내포, 긍정과 부정적 관점이 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에 치우친 경쾌한 해명을 연구 과제로 삼으려 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사회주의 운동 및 사회주의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구 관점은 그러한 인식 속에서 접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 없다.

일본의 근대화 추구는 서구와의 영향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근대화는 청교도 혁명(1640-60), 미국의 독립혁명(1775-83), 프랑스 대혁명(1789-99), 독일의 3월혁명(1848) 등의 시민혁명으로 사유재산제도, 정치적 자유, 입헌주의 등을 확립시키면서 절대주의, 곧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변혁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시민사회를 추구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도 세력이었던 시민계급 속에서 자본가층이 출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근대산업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던 시민혁명은 결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로 변혁되고 말았는데 그 특징은 상품 식민지 확보, 보호관세, 군비 증강 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가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1917), 제1차세계대전(1918)을 계기로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정자본주

의 단계로 변모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대공황(1929)과 뉴딜정책, 히틀러의 정권 장악(1933) 등의 영향은 독점적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를 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등주의를 지향했던 시민사회는 자본가층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자본가 계급과 산업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층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주의를 낳게 한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본의 사유화를 공유화로 돌리자는 주장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1854년 미국과의 화친조약을 계기로 서구의 침입을 막으려던 쇄국정책을 철회하고 서구열강들과 불평등한 관계에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한다. 메이지유신(1868)을 거친 일본은 청일전쟁(1894-95)의 승리 여파로 산업혁명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920년대를 전후로 3대 강국의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군수산업의 부흥을 가져왔지만 제국주의 군국주의의로의 방향 전환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으로 경제공황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양산했기 때문에 서구의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897년경부터 사회주의연구회, 1901년 사회민주당, 1919년부터 다이쇼(大正)민주주의운동, 1920 일본사회주의동맹, 1921년 일본노동총동맹, 1922년 일본공산당 등의 결성은 그러한 사회 현실에 기인한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주의 계급과 자본주의 계급으로의 양분현상을 보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산계급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낭만주의, 상징주의, 자연주의 뒤를 이어 프로문학 前史로서의 민중문학이 등장하면서 프로문학운동이 본격화된다.

1. 일본의 시대적 현실 상황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을 유발해 왔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러일전쟁, 1차대전 등으로 경제적 강국이 되면서 오히

2) 김재수, 『일본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9-44면.

려 심각하게 노동파공의 문제, 소작쟁의 문제가 나타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사회주의 세력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맞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연구회(1898)가 사회주의협회(1900)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 요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군국주의, 제국주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1901년 귀족원의 폐지, 치안경찰법의 폐지, 군비축소, 보통선거의 실시, 노동조합법의 제정과 단결권의 보장, 소작인보호법의 제정, 소년과 부인의 야간노동 폐지 등을 내세우는 사회민주당을 출현케 하였다. 일본사회당(1907)은 동아화친회(東亞和親會)를 개최하는 등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아시아 인민과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한 예는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자유·독립·자치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제국주의적 방책은 만국평민계급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언질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1907. 7. 21.)는 동경 사회주의자 유지회의 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

그러나 정부는 大逆事件(1911)이란 명분으로 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 2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탄압함은 물론 특별고등경찰을 경시청에 설치하기에 이른다.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경제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나 동경시청 노동자의 대파업(1912)까지 발생한다. 결국 대정정변(1913)이 일어나 계태랑(桂太郎) 내각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한다. 1914년에는 악세폐지, 벌족타도(閹族打倒)를 외치는 지멘스사건⁴⁾이란 민중운동이 나타나고 말았다. 이러한 예들은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한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즈음 국제적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14년 8월 제1차대전의 발발이다. 3,000만 명의 인적 손해를 준 이 전쟁은 4년 뒤에 끝났지만 일본의 참전은 심각해진 그들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에 좋은 여건이었

3) 井上 清, 성동만 역, 『일본의 역사』,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49, 349-375면.

4) 해군수뇌부가 군함간조와 군수품 매입을 하면서 독일의 지멘스회사, 영국의 빅카회사, 삼정물산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비밀이 폭로된 사건.

다. 일본은 참전을 통해 독일의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점령지와 경제적 기반들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가 전시체제로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서구를 대신하여 공업제품들을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러한 결과로 일본은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세계 5대 강국, 1922년의 워싱턴군축회의에서는 3대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간정부는 함대 규모 배정의 문제로 군부와 우익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미·영과 동등한 자격의 함대 규모를 갖추고자 했던 군부는 그 뜻이 좌절되자 우익과 연합해서 민간정부에 도전한 것이다. 이는 관료와 군인과 자본가를 중심으로 천황제를 지속시키던 제국주의 세력들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는 전후 재건을 위해 지나치게 투자한 결과 1차대전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리던 일본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결국 최악의 경제 상황인 공황을 맞게 되었다. 1920년에 불어닥친 경제공황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은 대삼영(大杉榮)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노동조합운동을 강화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을 강조하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주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의 부상은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불세비즘과 세력과의 대립을 가져오게 한다. 아나키즘·불세비즘 논쟁의 대두 배경은 바로 그와 같은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와 같은 대립 속에서 일본사회주의동맹(1920), 일본농민조합(1922), 코민테른 일본지부 공산당(1922)이 결성된다. 그렇지만 일본 공산당은 천황제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탄압을 받아 제1차 검거(1923)로 거의 전당원이 검거되어 다음해 3월 해당을 결의하였지만 코민테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재건 테제를 제시했다. 일본 공산당 재건은 福本主義를 토대로 1926년 12월에 재기하게 된다.

1차대전 중 일본은 공업제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면서 경공업, 중공업, 화학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쌀을 비

릇한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1918년 도야마(富山)현 어민들이 쌀값 하락을 요구하며 쌀집을 습격하는 쌀소동(米騷動)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여파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寺內正毅 내각은 사직하고 평민 재상이라고 불렀던 政友會의 총재 하라타카시(原敬:1856-1921)가 일본 최초로 본격적인 정당내각을 만들 수 있었다. 쌀소동 사건은 이처럼 사회운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민본주의 운동을 활발히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⁵⁾ 설상가상으로 1923(大正 12年)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각지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일본 최대의 공업단지 게이힌(도쿄-요코하마) 공업단지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일본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 추종자들과 무산계급들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계속 확대 발전시킨다. 그러나 공산계가 참여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주도권을 쥐자, 불만을 품은 농민조합 우파는 전일본농민조합동맹(1926)을 만들었다. 동경, 경도 등지에서는 사회과학연구단체가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며 학생연합회를 조직하고 군사교련 반대 운동과 더불어 좌익의 노동조합, 농민조합과 결합하여 군국주의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 이의 규제를 위해 일본정부는 치안유지법(1925)을 공포했다.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 사상에 토대를 둔 노동운동이나 반체제 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정부에서는 학원의 적화를 두려워하여 1925년부터 학원의 간부를 전국적으로 검거하기에 이른다. 학연사건(1926), 3·15사건(1928), 요코하마사건(1942) 등은 바로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사건이었다.⁶⁾

결국 일본은 1868년 명치정부의 출발과 함께 덕천막부의 봉건사회는 시민사회로 변형되었고, 국수주의와 자유민권운동의 대립이 나타난다.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1차세계대전(1914) 등으로 경제적 번영과 함께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 등 사회문제가

5) 井上 清, 성동만 역, 앞의 책, 401면.

6) 김채수, 앞의 책, 237면.

심각하여 大逆事件(1911), 지멘스사건(1914), 쌀소동 사건(1918), 다이쇼(大正)민주주의운동(1919), 일본사회주의동맹(1920), 일본노동총동맹(1921), 일본농민조합(1922), 코민테른 일본지부 공산당(1922) 결성과 같은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 군·민 정부의 대립, 1920년의 경제공황, 1923년의 관동대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2. 프로문학을 잉태하는 일본 문단의 상황

일본 근대문학의 시기 구분은 한국문학사처럼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다. ㉠ 徳川 幕府 체제가 붕괴하고 明治政府가 탄생한 명치원년(1868)부터 현재까지를 근대로 잡는 경우, 프롤레타리아문학·신감각파 이전을 근대, 그 이후를 현대로 잡는 경우, 제2차 대전 이전을 근대, 그 이후를 현대로 보는 견해⁷⁾, ㉡ 명치개화에서 1차세계대전까지를 전기 근대문학, 프로문학 및 모더니즘이 등장한 이후를 후기 근대문학으로 보는 견해⁸⁾, ㉢ 네 번째 전환기 이후로 보는 견해⁹⁾, ㉣ 명치 초기를 근대의 출발로, 그 후는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하여 근대, 현대문학으로 보는 견해¹⁰⁾, ㉤ 일본문학에서 근대라 하면, 일반적으로 메이지유신(1868) 이후를 말한다. 이 시기에 시가의 새로운 형태로 근대시가 탄생하게 되었다.¹¹⁾

이러한 견해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명치 이후를 근대문학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명치 이후의 일본 문단의 현실을 살피는 일은 프로문학의 발생 토양을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핀 일본의 현실 상황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계가 깊으므로 그와 관련지으면서 일본문단의 상황을 살펴본다.

7) 이일숙, 『시대별 일본문학사』, 2002, 151면.

8) 신현하, 『일본문학사』, 보고사, 2000년, 200면.

9) 加藤周一 저, 김태준·노영희 역, 『일본문학사서설2』, 시사일본어사, 1996, 42면

10) 정인문, 『일본근대문학사의 재인식』, 도서출판 영한, 1921, 5면.

11) 최충희 외 4인,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2004, 440면.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부터 취한 경제적 이득으로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형성되어 도시의 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층사회가 성립된다. 그 결과 빈궁과 노동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그러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운동이 탄생한다.¹²⁾ 이 시기에 나타난 『노동세계』(1897년), 『일본의 하층사회』(1899), 『사회주의』(1899), 『근세사회주의 평론』(1900), 『사회주의』(1903) 등의 잡지 출현은 당시의 현실 문제를 반영하려는 일본문단 실상을 잘 말해 주는 것들이다.

봉건사회에서 탈피하여 근대화를 지향하던 명치기의 문학은 번역문학의 성행과 함께 戯作文學, 傳統詩歌, 歌舞伎 같은 문학에서 현실을 반영하려는 사실주의 문학을 지향하였다. 서양문학의 이론 소개, 문학계몽, 언문일치 운동, 계몽사조, 번역문학의 성행, 정치소설 성행, 신체시 운동, 사실주의 소설론, 낭만주의 문학, 자연주의 문학 등을 제창하면서 문명개화관 현실 속에서 근대문학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小説神髓』(1885)는 문학을 도덕이나 정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사실주의 문학을 통하여 근대문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언문일치와 사실주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7·5조의 서구 번역시집 『新體詩抄』는 5·7·5 세 구 17음으로 된 일본의 대표적 짧은 정형시 형식을 보였던 하이쿠(俳句)나 와카(和歌)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낭만주의 시집 『若菜集』(1897) 역시 새로운 근대 자유시를 추구한 것이었다. 森鷗外와 北村透谷을 중심으로 한 『文學界』(1893) 동인들의 낭만주의 운동은 낭만시 전성 시대를 열었는데 이는 고전주의와 합리주의에 대립하여 개인의 해방과 개성을 중시하는 근대문학을 지향했던 일본시단의 상황을 보여준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삶을 묘사하려는 에밀졸라, 모파상의 서구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小杉天外, 永井荷風, 島崎藤村, 山田花袋 등의 활동,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은 早稻田

12) 김채수, 앞의 책, 52면.

大學 중심의 『奇蹟』 동인들의 활동 등은 근대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은 청일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팽창에 따라 나타난 암흑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개인의 해방을 지향하면서 근대문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鳥崎藤村의 『破戒』(1906), 田山花袋의 『蒲團』(1907) 등의 자연주의의 작품들이 등장한 것이다.

명치 43년(1910)부터 소화 2년(1927)에 이르는 기간을 문학에 있어서 대정기라고 보통 일컫는다. 대정기 문학은 그 나름대로의 성숙을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10년에 『白樺』, 『田文學』, 『新思潮』의 창간이 이루어지면서 대정기 문학을 형성한다.¹³⁾ 그러나 이상주의와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하는 백화파의 이념은 명치 말부터 비대화해 가는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 현실과 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신과의 괴리를 윤리적으로 추궁 자살한 백화파의 有島武郎과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껴 자살한 芥川龍之介는 대정문학의 한계를 보인 것이며,¹⁴⁾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신감각파에 결집된 차기문학의 도전에 직면한 것이었다.¹⁵⁾

앞에서 살핀 것처럼 1차세계대전, 경제공황, 관동대지진 등으로 노동자, 빈공의 문제가 심각했던 현실상황에서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을 전개케 했던 것이다. 대정 데모크라시 운동은 계급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연계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小川末明, 小政近江 등의 3,000여 명 문학자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일본사회주의동맹(1918)은 당시의 문단 실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平林初之輔와 荒畑寒村는 『근대사상』(1912)을 창간하면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추구해 나갔다. 오스기의 『생의 창조』(1914), 간손의 『함저』(1912) 등은 바로 그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平林初之輔는 민중

13) 정인문, 앞의 책, 20-21면.

14) 이일숙, 앞의 책, 152면.

15) 정인문, 앞의 책, 21면.

예술의 이론과 실제, 유물사관과 문학, 제4계급의 문학, 무산계급과 예술 등의 평론으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다.

일본의 민중예술운동과 노동문학론은 프랑스의 클라르테 운동의 영향으로 창간된 고마키 오미의 『씨뿌리는 사람』(1920)으로 결실을 맺는다. 靑野季吉, 中野重治 등의 동인들은 세계주의 문예잡지를 표방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문단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기근 구제, 러시아 사회혁명당원 처형문제를 둘러싼 고리키와 라테크 논쟁, 적색 프롤레트쿠르트 인터내셔널의 의의, 로맹롤랑대 앙리 바르뷔스의 논쟁 등의 특집을 연재하면서 예술의 계급성의 문제, 무기로서의 예술의 의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함으로써 동인을 중심으로 『문예전선』(1924)을 창간한다. 中野重治는 『문예전선』에서 「자연생장과 목적의식」이란 평론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종래의 자연발생적인 문학으로부터 목적의식을 갖는 마르크스주의운동의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 문예전선파는 무정부주의자와 반마르크스주의자들을 배제하기에 이른다.¹⁷⁾ 林房雄, 中野重治 등의 사회문예연구회와 문예전선 동인들이 합쳐지면서 문학운동의 공동전선단체로서 일본프롤레타리아문예연맹(1925년 12월)이 결성된다. 문예전선은 일본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福本和夫의 복본주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연구회가 결성되면서 아나키즘계의 사회주의자들을 추출하고 공산주의를 토대로 일본프롤레타리아문예연맹을 일본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1926년 11월)으로 전환시킨다.

Ⅲ. 1920년대 전후 한국의 시대적 현실과 문단 상황

오세영은 『20세기 한국시 연구』(1998)에서, “문학을 역사의 반영으로 이

16) 조진기,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론』, 105-109면.

17) 김채수, 앞의 책, 235면.

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 시대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성장 소멸하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일, 그것은 문학 연구의 바탕이자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사에서 프로시론이 어떠한 시대 현실 속에서 어떤 시대정신을 지향하였던 시론이었을까에 대한 해명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프로시론이 나타나게 된 1920년대 전후의 한국의 시대적 현실 상황과 문단 상황이다.

1. 한국의 시대적 현실 상황

1910년대 조선의 상황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의해 형성된 핍박의 시기이다. 이러한 핍박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일본의 무단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 운동은 비밀결사를 바탕으로 저항 운동으로 나타난다.

먼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1910년 9월 20일 朝鮮駐劄憲兵條例는 일제가 계획한 한반도 지배 야욕의 실상을 잘 말해 준다.¹⁸⁾ 이렇게 시작한 1910년대의 일제의 무단통치는 1910년 8월 합병 이후로부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혹독하고 철저한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7년 헌병경찰 총수는 12,423명으로 전국 인구는 1,400여 만 명인데 헌병경찰 1명의 인구는 1,100여 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 이로 보아 그 탄압의 정도가 어떠했

18) 조선주차헌병은 치안 유지 및 군사 경찰을 장악한다(제1조). 헌병은 육군대신 관할에 속하고 그 직무의 집행은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사경찰은 육군대신 및 해군대신의 지휘를 받는다(제2조). 헌병은 폭행을 받을 때, 병기를 사용치 않고는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와 사람이나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는 병기를 사용치 않을 수 없다(제6조). 헌병대의 관구 본부부대 배치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제8조). [천관우 외 14인, 『한국사대계 제8권』, (도서출판 아카데미, 1984), 32면.]

19) 천관우 외 14인, 『한국사대계』, 아카데미, 1984, 43면.

는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특별 고등 경찰과 헌병들은 우리 생활 전반을 감시하고 억압하면서,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검사 사무 대리, 범죄의 즉결, 민사 쟁송의 조정, 집달리의 업무, 국경 세관의 업무, 산림 감시, 민적(호적)사무, 우편 호위, 강우량의 측정, 일본어의 보급, 도로의 개수, 납세 의무의 유지 등으로 암흑과 같은 사회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학생·지식인·재산가·공공사업가 중에서 부랑자로 압제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친족, 친구까지 체포 구금하여 인사불성할 정도로 갖은 심문과 악형을 가하였다.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은 비밀결사대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항운동은 봉건 체제의 양반·유생(儒生) 등에서 도시의 중류층 이상의 신지식 계급이 주도하게 되었다.²⁰⁾ 이를 두고, 조선총독부 경찰총감 明石元二郎은, “제어하기 힘든 것은 비밀결사의 발생이다. 국내의 학재(學才)가 있는 자들은 3명만 모여도 정사(政事)를 논하는 형편”²¹⁾이라고 했다.

1911년 신민회의 안악사건, 1913년에는 독립의군부 사건(소위 온양 사건), 광복단 이관구의 비밀결사(광복군), 1914년에는 대성학교 출신 학생의 비밀결사, 질성 불단(야구단), 1915년에는 선명단, 조선국권회복단, 광복회의 친일파 사살, 1916년에는 한영서원 창가집·자립단·영주대동상점·홍천학교 맹가집 관계 의거, 1917년에는 이증연 등의 비밀결사, 1918년에는 조선국민회·민단조합·자진회·청림교 의거 등²²⁾은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일제는 이 기간 동안 경제 지배체제를 갖추며 수탈정책을 수립하였다. 당시 우리의 실정은 자연경제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미곡이나 면(棉)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여 교통·통신·화폐제도·도량형의 통일을 시도하면서 토지 조사를 추진하여 자본주의화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 55~72면.

21) 천관우 외, 위의 책 46면.

22) 천관우 외, 위의 책 47면.

를 강행한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불일흥업 등과 일본 대지주의 농토 수탈은 몰락 양반을 낳게 하고 대부분의 농민을 영세소작농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의 반수 이상의 농민들은 채무에 시달리다 못해 화전민 혹은 만주, 간도 등지로 유랑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 그뿐만 아니라 어업, 광업, 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 걸쳐 권한을 장악하면서 착취를 자행했기 때문에 민족경제는 점점 침담하였고 이로 인해 저항의식과 국권회복의 의욕은 더욱 왕성하게 되었다.

현상윤은 「말을 반도 청년의게 붓침」²³⁾에서, 일제 탄압의 현실 속에서 도저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 하와이 등과 같은 곳으로 유랑하며 기아선성에서 허덕이는 실상을 지적한다. 그러한 현실에서 낭만적 태도로는 살아갈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강력주의와 조선청년」(학지광, 1915. 6.)에서 “니체는 권력만능을 주장하였고 몬테스큐는 강권의 절대가치를 嚮導하였으니 세계의 논란이 아무리 紛紜하여도 나는 이 두 사람의 말을 遵奉하고 확신하고자 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갈 길이 강한 힘을 기르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高志英은 『學之光(202호)』에서 당시의 국제적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구주대전쟁으로 약 이천칠백십오만 명이 희생되었고 삼천칠백십여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橫斷戰爭(國際戰爭)이 縱斷戰爭(國內戰爭)으로 변화되어 세계가 암흑천지로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암흑천지를 광명천지로 변화하기 위하여 신문명과 영원화평을 선언한 사람은 윌슨과 레닌이다. 윌슨은 현대문명의 결함을 사람의 양심적 타락 즉 유심적으로 생각하였지마는 레닌은 이것을 생산분배 불평등 즉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영국에서 삼각동맹의 罷工,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동맹 파공·신문 휴간,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의 동맹파공, 인도·아일랜드·이집트 등에서 독립운동, 미국에서는 강화조약의 부결·炭坑夫의 동맹파공, 러시아의 과격정부의 성립, 독일의 공화국 건설, 壤地利(오스트리아나

23) 현상윤, 「말을 반도 청년의게 붓침」, 『학지광』, 1915, 16면.

匈牙利의 공화국 건설, 일본에서는 同盟罷工·신문휴간·보통선거운동 등形形色색의 운동이 세계도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발생한 사회운동의 원인은 사회 결합에서 온다. 사회 결합은 혁명이나 사회운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10년대의 한국 사회의 현실은 국내적으로는 일제의 무단정치, 경제적 수탈 정책으로 인해 타국으로 유랑까지 해야 하는 극심한 수난의 상황이었고 국제적으로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 문단의 상황

당시의 신문, 잡지 등에 소개된 논제들을 살펴보면 시대정신과 한국문단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조선혼(최석하, 태극학보 5호, 1906), 일본에 在韓 我韓留學生을 論 함(이보경, 대한홍학보 제12호, 1910), 今日 我韓青年의 경우(孤舟, 『소년』, 1910), 광의의 애국심(檀員生, 매일신보 1911), 말을 반도 청년의게 붓침(현상윤, 학지광, 1915), 강력주의와 조선 청년(현상윤, 학지광, 1915), 조선 청년과 각성의 제1호(小星, 학지광·3), 조선 청년과 수양(한용운, 유심 제1호, 1918), 자아를 개벽하라(권덕규, 개벽 제1호)

이러한 논제들은 애국심 고취, 민족의식의 자각과 청년이 해야 할 일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일합방과 일제의 극심한 무단정치 상황에 대응하려는 지식인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국문론(지석영, 대한독립협회회보, 1896), 한문자와 국문자의 손익여하(신해영, 대한독립협회회보, 1897), 국어와 국문의 필요(주시경, 서우학회월보, 1907), 국문편리 및 한문 폐해의 설(姜堉, 태극학보, 1907), 국문과한문의 관계(한홍교, 대한유학생회회보, 1907),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이보경,

태극학보, 1908), 국한문경중론(매일신보, 호남학회월보, 1908), 국어연구의 필요(매일신보, 1911)

위의 논제들은 민족의식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위해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들이다.

아국교육계의 현상을 관하고 보통교육의 급무를 논함(장용진, 태극학보, 1906), 교육이 불흥이면 생존을 부득(박은식, 서우학회월보, 1906), 교육변론(李沂, 호남학회월보, 1908), 국민의 지식보급설(박해원, 대한홍학보, 1909), 학생론(曩印生, 대한홍학보, 1909), 자녀중심론(춘원, 청춘 15호, 1918), 학생의 전도(석향, 매일신보, 1920), 천재야 천재야(이광수, 학지광 12호, 1917)

이는 교육과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들이다.

소년문단(1908), 문학의 가치(이보경, 대한홍학보, 1910), 『소년』의 기왕 및 장래(『소년』, 1910), 문장학을 불가전편(매일신보, 1911), 시가와 풍화(매일신보, 1911), 문학사상의 쇠퇴(매일신보, 1911), 시학의 쇠퇴(매일신보, 1911), 예술적 생활(김억, 학지광, 1915), 조선의 문학(안확, 학지광 6호, 1915), 현대조선에 자연주의 문학을 제창함(백대진, 신문계 29호, 1915), 신년벽두에 인생주의파문학자의 배출을 기대(백대진, 신문계 30호, 1916), 문학에 대한 신연구(백대진, 신문계 32호, 1916), 문학이란 하오(춘원생, 매일신보, 1916), 문단의 혁명이야(백일생, 학지광 14호, 1917),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과 대표적 작물·예술가와 자카·로시아의 시단·프랑스 시단·시형의 음률과 호흡(안서생, 태서문예신보, 1918), 최근의 태서문단(백대진, 태서문예신보, 1918), 일본근대시초(별꽃, 창조, 1919), 르네상스 문예부흥(極能, 창조 1919), 시인 秋湖(秋湖, 창조 1919), 조선에 대한 조선사람의 사상을(김동인, 학지광 1919), 조선시단의 발족점과 자유시(상아탑, 매일신

보, 1919), 문예에 대한 잠감(극능, 창조 1920), 글동산의 거둠(琴童人, 창조, 1920), 새 문학과 넷문학의 비교(훈시생원, 반도시론, 1920), 최남선 군을 논하고 동시에 조선의 저술계를 一瞥(백대진, 반도시론, 1920), 시문서화의 부흥(一記者, 반도시론 1920), 문예에서 무엇을 구하는가(春城生, 반도시론, 1920), 문단의 어구에 서서(장진식, 학생계 22호, 1920),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염상섭, 동아일보, 1920), 조선신문학 건설을 제창함(석송생, 동아일보, 1920) 余의 평자적 가치를 논함에 담함(霽月, 동아일보, 1920), 제월 씨에게 대담함(김동인, 동아일보, 1920), 내적 조선 문예쇄신요망(동아일보, 1920)

이는 한국문단의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고자 하는 주장들이다. 인생주의, 서구 문학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문학 건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문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한국국민의 생활을 논함(채규병, 태극학보 5호, 1906), 시급히 해결해야 할 조선의 2대 과제(박달성, 개벽 1호, 1920), 노동운동의 경향과 노동의 진의(염상섭, 동아일보 1920)

이는 경제생활과 노동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논제들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민족의식의 자각 및 애국심 고취, 국문의 필요성과 언어에 대한 자각, 교육과 지식, 인재 육성, 신문화 및 신문학 운동, 농촌 및 노동에 관련된 것들이 1920년 전반기까지의 중심 논의의 제재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급격히 향상되는 조선청년의 사상계(박달성, 개벽 2호, 1920), 시대사조와 조선청년(고지영, 학지광(1920), 조선민족성을 논하노라(이돈화, 개벽 5호, 1920), 외래 사상의 흡수와 소화력의 여하(滄海居士, 개벽 5호), 조선청

년회연합회의 성립에 취하야(이돈화, 개벽 7호, 1921), 민족적 체면을 유지하라(이돈화, 개벽 8호 1921), 청년 단체에 대한 나의 요구(윤익선, 개벽 8호, 1921), 재간도 조선인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朴堃, 개벽 13호, 1921),

신시대와 신인물(이돈화, 개벽 3호, 1920), 사회주의 약의(孤蝶, 개벽 3호), 문화주의와 인격상 평등(백두산인, 개벽 6호), 過渡期에 立余의 新運動(정창선, 개벽 9호), 최근의 우리 사회의 현상에 感하야(CM생, 개벽 9호), 금일 조선의 勞資 관계-지주와 소작인 附 소작인 만길의 생활-(최중갑, 개벽 15호), 예술에 표현된 개성과 객관적 가치(동아일보, 1920), 전쟁 문예에 표현되는 사상적 불안(如是觀 譯, 동아일보, 1920), 근래 불국에는 전쟁문학이 유행(동아일보, 1920), 상징적 생활의 동경(이동원, 개벽 2호, 1920), 문학 이야기(김억, 학생계, 1920), 시성 타쿠르에 대하여(김유방, 학생계, 1920), 폐허에 서서(폐허 창간호, 제월?), 洋鞋과 시가(公民, 폐허 창간호), 시대고와 그 희생(오상순, 폐허 창간호), 일본 시단의 2대 경향-寫象主義-(황석우, 폐허 창간호), 스펡쓰의 고뇌(億生, 폐허 창간호), 한문학 이야기(노자영, 개벽 3호), 조선문화 건설에 대한 도안(이돈화, 개벽 4호), 호적 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 혁명-최근 발행된 『支那學』 잡지에서(양백화, 개벽 5호), 최근의 시단-羊鳴 步星, 요한, 춘원, 春城 諸君의 시를 읽고-(황석우, 개벽 5호), 희생화와 신시를 읽고(황석우, 개벽 6호), 비평을 알고 비평을 하라-시사신문에 微蛻 君과 동경 잇는 황군에게 답-(현철, 개벽 6호), 근대문예와 입센(현철, 개벽 7호), 문사와 수양(춘원, 창조 8호), 현대예술의 대안에서-회화에 표현된 포스트임프레쉴니즘과 큐비즘-(김유방, 창조 8호 1920. 11월), 종교와 예술(오상순, 폐허 2호), 메터링크와 예잇스의 신비 사상(변영로, 폐허 2호), 폐허잡기(남궁벽, 폐허 2호), 신비주의(이훈, 학지광 21호), 문학에 표현되는 감정(曉鍾生, 개벽 8호), 우연한 도정에서-신시의 정의를 쟁론하시는 여러 형에게(김유방, 개벽 8호), 소위 신시형과 몽롱체(현철, 개벽 8호), 동서 문화상에 현하는 고금의 사상을 일삼하고(박달성, 개벽 9호), 톨스토이 예술관(김유방 초, 개벽 9호), 문화

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현철, 개벽 10호), 로덴빠흐 Georges Rodenbach(안서 拔, 개벽 10호), 예술적 양식이 결여한 우리 문단(이익상, 개벽 11호, 1921. 3), 낭만주의의 의의(홍병선, 청년 3호), 근대 문예-자연주의 신낭만주의, 附 表象主義派 시가와 시인(안서, 개벽 12호), 비평에 대하여(금동, 창조 6호), 작품에 대한 평자적 가치(김유방, 창조 6호), 독일의 예술운동과 표현주의(효종, 개벽 15호), 플로베르론(김억 역, 개벽 15호)

1920년 후반기부터 1921년 전반기까지 논제들인데, 앞에서 살펴본 민족 의식의 자각 및 애국심 고취, 국문의 필요성과 언어에 대한 자각, 교육과 지식, 인재 육성과 관련된 논제들은 사라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신문화 및 신문학 운동에 관련된 논제들이 중심 제재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近代文藝 三(岸曙 개벽 10월 임시호), 文學上으로 보는 思想(曉鐘, 개벽 10월 임시호), 不得已하야(廉尙, 개벽 10월 임시호), 佛蘭西의 革命과 文學의 革新 一~四七(동아일보, 1921), 모름이 美로부터-感想-(曉鐘, 개벽 17호), 吾人の 生活과 藝術(申湜, 개벽 18호), 藝術界 回顧 一年間(曉鐘, 개벽 18호), 南宮璧 君의 死를 압해 노코(相涉, 개벽 18호), 藝術과 人生(京西學人, 개벽 19호, 1922), 今日이 誕生百年인 프로베르 Gustave Flaubert(岸曙生, 개벽 19호), 백조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 하나(홍사용, 백조 1호), 러시아의 民謠(月灘, 백조 1호), 文化運動의 批判-態度的 不徹底가 是憂(金起漏, 동아일보 1922), <文壇에 對한 要求> 生活에 接觸하고 修養에 努力하라(玄相允, 동아일보 1922), 白覺 白重努力과 其他의 希望(閔泰琿, 동아일보 1922), [말둑죽제비]의 흙을 씨스라(權憲奎, 동아일보 1922), 나는 오죽 苦言뿐(梁建植, 동아일보 1922), 朝鮮人 生活問題의 研究 其一(鮮于全, 개벽 20호), 少年同盟과 朝鮮民族의 復活 少年에게 其四(魯啞子, 개벽 20호), 文學에 뜻을 두는 이에게(京西學人, 개벽 21호), 民衆의 叫號의 第

一聲인 甲午의 革新運動(黃義敦, 개벽 22호), 봄날의 雨를 밟으면서(金起癩, 개벽 22호), 國際共通에 對하야(金億, 개벽 22호), 嗚呼地方農村의 衰頹(朴春坡, 개벽 22호), 個性과 藝術(想涉, 개벽 22호), 露西亞의 산 文學(金明植, 신생활 3호), 民族改造論(李春園, 개벽 23호), 民衆的 叫號의 第一城인 甲午의 革新運動 (續)(黃義敦, 개벽 23호), 嗚呼 我文壇(백조 2호), 文學의 本體(江戶學人, 개벽 24호), 勞農露西亞의 文化施設(鄭栢, 신생활 6호), 春園의 民族改組論을 讀하고 그 一端을 論함(申相雨, 신생활 6호), 春園에게 問하노라(崔元淳, 동아일보), 南鮮農主에게 警告하노라(金鴻機, 개벽 25호), 文學과 靈感(江戶學人, 개벽 25호), [草葉集]에서(휘트맨 作, 金石松 譯), 朝鮮土地兼併의 原因及現狀(妙香山人, 개벽 26호), 農民의 都市移轉과 農業勞動의 不利의 諸原因(鮮于全, 개벽 26호), 民衆藝術論(金億 譯), 별의 압힘과 其他(故 南宮辟, 신생활 8호), 民衆藝術論 續(金億, 개벽 27호), 不滅의 象徴(林蘆月, 개벽 27호), 自由批評의 精神(權園, 신생활 9호), 朝鮮文學의 革新論(崔相絃, 매일신보, 1922), 最近의 藝術運動(林蘆月, 개벽 28호), 文化建設의 核心的 思想(동아일보, 1922), 東西의 文化 批判하야 우리 文化運動을 論함(北旅東谷, 개벽 29호)

이상은 1922년의 주요 논제들이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문학, 사회혁신 운동, 농촌의 실상, 농민에 대한 관심, 농민의 도시로 이전, 최근의 예술운동 등에 대한 관심이 주요 제재였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의 한국의 시대적 상황은 3·1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압박이 더욱 강화되었다. 강한 힘을 길러 일제로부터 독립을 취하여야 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선도해야 할 지식인들 중에는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과는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즉 한국의 문단은 시대적 현실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셈이다. 백대진은 이런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아직도 세대에 不適合인 구문학이 반도에 旗幟를 樹할 뿐으로 現代實人生에 대한 문학은 其影이 업스니 실로 탄식하는 바이라. 요컨대 구문학은 夢想的, 空想的, 浪漫的, 幻影的 문학으로 결코 이십세기 금일에 適合인 문학이 아니오, 또한 금일 반도에 適合인 문학이 아니라 환연하면 實人生 實生活을 위한 문학이 아니오 일개 詩人性을 抱한 문학이며 또한 예술을 위하여 産한 문학이 곧 審美的 예술주의의 문학이다. 一評을 가하는 동시에 자각하기를 望하노라. <중략> 금일은 결코 몽상적 예술로 인하여 사회를 개조할 시대가 아니오, 또 큰 反響을 요구할 시대가 안인즉 實寫主義의 문학, 곧 자연주의 문학으로 이상을 作함이 가하지 아니한가²⁴⁾

인용 글은 몽상적, 공상적, 환영적 문학으로는 실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대진은 이 글을 통해 실생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실주의 문학, 자연주의 문학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문계 32호에서는 문학의 목적을 내적으로는 예술 본능을 발표함에 있고 외적으로는 利用 곧 實用에 있다고 갈파했다. 낭만적 정서로서는 시대적 상황을 선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일제 치하의 혹독한 현실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실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실용 및 이용성을 주장함은 현실을 냉정히 바라본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근대문학 비평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이광수의 「문학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에서 그는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문학관을 거부하고 근대적 관점에서 문학의 논의가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자녀중심교육론」(청춘 15호), 「신생활론」(매일신보 1918. 9. 6-10. 19.)도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상일은 「문단의 혁명아를 독하고」(학지광 3호, 1918. 1.)에서, “世의 진보발전이 그 대부분이 혁명의 賜物이오. 국가 민족의 향상증진이 거의 다 혁명의 힘이라 할 수 있으니 혁명이란 인류계의 萬般事의 진보 발전 향상 증진에 크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풍기혁신론」(청춘 제14호)에서는 양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반을 去하라 班枷를 脫하라고

24) 백대진, 「현대조선에 자연주의 문학을 제창함」(신문계 29호, 12월).

한다.

이러한 주장들로 미루어 볼 때 1920년대를 향한 한국문단의 과제는 어떻게 시대정신을 문학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는 달리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새로운 사조의 수용도 나타난다. 이른바 상징주의와 낭만주의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주요한은 「日本近代詩抄」(창조, 1호, 76쪽)에서 “최근 50년 동안 서구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새로운 일본의 문예를 주의하려 할 때는 먼저 신체시 뒤에는 장시라고 일컫는 형식으로 성립된 근대시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鳥崎藤村이 시단에 나오기를 전후하여 詩壇의 搖籃時代라 칭할 수 있는 시대의 작가로 與謝野鐵幹 河井醉茗, 土井晚孕, 平木白星 橫瀬夜雨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일본의 로망티시즘 시대를 보려면 초기에 鳥崎藤村, 후기에 薄田泣菫를 보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蒲原有明, 岩野泡鳴을 심벌리즘으로 소개한다.

최승만은 1920년 『창조』의 「文藝에 대한 雜感」에서 자연주의 이전의 문예, 최근 20세기에 발흥된 歐洲文藝思潮사의 변천을 논하면서, 尙古主義(Classicism)는 17, 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구주에 흥행되었던 古風格의 사조로, 로망티시즘(Romanticism)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낭만주의인데 19세기 전반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난 후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개성과 자유와 독창을 중시하고 자연적인 정서에 큰 주의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징주의, 낭만주의, 예술지상주의 문학 현상에 대해서 문단 일각에서는 비판의 시각이 생겨난다. 張鎭植은 『학생계 225호』(1924년)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표방을 앞세우고 문장승배 技巧崇尚의 예술을 위한 예술에 매달린 사람들이 獨樂의 콧소리 잠꼬대 헛소리하는 작품을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작품은 울고 웃고 얹어지고 자빠지는 현대의 우리 특수계급을 제외한 일반 민중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대중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공명하는 위대한 작품을

요구한다.

『文學 이야기』(『學生界·7』)에서 김억은 기계만능의 시대가 경제상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로 말미암아 신구의 충돌, 작비금시의 비장적 방향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고전주의에 대한 낭만주의, 낭만주의에 대한 자연주의, 자연주의에 대한 신이상주의(여기에는 신낭만주의 신비주의를 포함하여 말한다.)가 생긴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예술지상주의 예술을 “예술은 인생보다 고상하다, 상아탑, 예술의 궁전, 속류의 愚物과 沒交渉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 혼자 아름다운 천지에서 소요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는 예술지상주의자들은 사회를 어떻게 하느니 세상을 어떻게 하느니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그는 인생지상주의 예술을 “인생 없이 예술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예술이란 것은 필경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을 구하자 하는 인생의 모든 활동에 대한 만족을 주려고 하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오상순은 『폐허』 창간호에서 「시대고와 그 희생」이란 제목 하에서 우리 조국은 荒涼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대는 비통한 번민의 시대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일체 내적 외적 퇴폐하고 고루하고 편협하고 침체하고 停滯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모든 인습적 노예적 생활의 양식으로 향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폐허』의 「일본시단의 2대 경향」에서 황석우는 일본 시단의 주조를 口語詩의 자유시 운동으로 파악한다. 그는 2대 경향으로 三木露風, 日夏耿之助를 비롯하여 柳澤鍵?, 西條八十北村初雄의 여러 청년예인의 손에 의하여 인도되는 상징주의 운동과 또는 이에 반항하여 나타난 富田碎花加臨? 一夫, 白鳥省吾 등의 민중시가 운동 경향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1920년대 한국문단의 상황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수용하려는 경향과 시대정신을 수용하려는 인생주의 경향이 대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를 부르조아 문학적 경향이라 한다면 후자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대립은 바로 일제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대정신을 문학 속

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만하다.

IV. 사회주의 수용과 프로시론의 등장

3·1운동은 일본의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유화정책을 기도하면서 민족운동의 분열과 개량화를 추구하였다. 문화의 창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도 치밀한 새로운 지배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총독부 관제의 개편과 헌병 경찰제도의 폐지, 조선인 관리의 임용과 대우 개선, 언론, 출판, 집회를 통한 민의의 창달, 교육, 산업, 교통, 사회의 개선,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의 명분 좋은 정책을 내걸었다. 무단통치로 쉽게 지배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나, 한민족의 강한 독립 의지와 저항운동은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활한 통치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농민에 대한 착취는 그 이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10 년대에 주로 토지조사사업, 국유지 정리 등의 명목 아래 공개적으로 감행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 토지소유의 집중은 은폐된 형태, 즉 상품화폐 관계 또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통해 식민지 약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으로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삼으면서 소작료의 수탈, 상품 유통을 통한 농민수탈, 고리대에 의한 착취 등으로 농민들을 괴롭혔다. 이에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비롯한 농민운동을 벌인 것이다.

일제는 1920년에 회사령을 철폐하고 종래의 기업허가제를 기업등록제로 바꾸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에 보다 유리한 길을 열어주고 일부 예속자본의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일제 독점자본이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자리잡은 일본 중소자본을 더욱 키우는 방법, 그리고 철도,

체신, 산림경영 등 관영기업을 확대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일제는 독점자본의 침투를 강화하였다. 일제 독점자본에 의한 수탈의 강화는 조선공업의 식민지적 예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조선의 공업 중 중화학공업은 매우 미약한 반면 경공업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미공업, 고무공업, 방직공업 등 제1차 가공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일본 독점자본의 침탈은 조선인 자본가들을 몰락하는 계층과 성장하는 계층으로 분리시켰다. 일제의 비호 아래 육성되는 자본은 심한 예속성을 띠게 되었으며 일제의 비호로부터 탈락한 자본가는 거대자본에 의해 몰락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상은 노동자계급의 증가이다. 식민지적 예속성을 띠었으나 조선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 노동자계급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본의 식민지적 초과이윤 획득을 위해 기아적인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고 점차 노동운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3·1운동에서부터 주목할 것은 노동자·학생·청년들 상당수가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민중들은 부르주아 이념이 더 이상 민족운동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점차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상인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왜냐 하면 일본의 민족 분열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지들이 일제와 타협하여 민족개량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일제와 타협하면서 몰산 장려 운동, 민립대학 설립 운동 등을 전개한 것은 그 실례라 하겠다. 그래서 192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 등이 성장하게 된다. 고려공산성(1820), 서울청년회(1922), 동경의 유학생이 조직한 북성회(1923), 조선노동총동맹(1924), 조선청년총동맹(1924), 조선공산당(1925) 등이 조직되어 소작쟁의, 노동쟁의, 학생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에 저항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한국문단에서도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하였다. 신경향파 시론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신경향파 시론은 앞에서 살펴본 1920년대 전후의 한국의 시대적 현실 상황과 문단의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1920년대 초반 기존의 낭만주의 및 자연주의 경향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경향을 수용한 것이 신경향파 문학인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시론이다. 신경향파 시론은 카프가 결성되고 제1차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자연발생적 프로시론을 의미한다. 카프가 결성되기 이전 1922년 9월에 해방 문화의 연구와 사회문화 운동 실천을 목적으로 한국 최초의 프로문학 단체인焰군사(焰群社)를 결성하였다. 1923년 10월에는 파스칼라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두 단체는 자연발생적인 초보 단계였으므로 목적주의와 당파성에 입각한 본격적인 프로문학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신경향파 혹은 자연발생적 프로문학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焰군사와 파스칼라는 결합하게 된다. 1925년 8월 23일 두 단체가 결합함으로써 카프가 결성된다. 이렇게 하여 사회주의 문학 운동 단체인 카프가 결성됨으로써 한국문단에서 10여 년 간 실천적 행동으로 계급주의 문학을 선도하게 된다. 카프의 결성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3.1 운동의 결과, 일제의 한반도 식민정책이 무단정치에서 회유와 동화, 민족 내부의 이간 등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전환되는 때였다. 그 영향으로 제한적이지만 언론, 출판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9. 9. 3일, '언론 출판 집회 등에 대하여는 질서와 공안 유지에 무방한 한 상당히 고려를 가하여 민의창달을 허(許)하여야 한다.'는 훈시를 발표하였다.

그 영향으로 국내적으로는 1920년에 조선일보(1920. 3. 5), 동아일보(1920. 4. 1), 시대일보(1924. 3. 31) 등 신문이 창간되고, 『개벽(開闢)』(1920. 6), 『학생계(學生界)』(1920. 7), 『폐허(廢墟)』(1920. 7), 『새동무』(1920. 11) 등의 잡지 발간이 가능케 되었다. 1921년에는 『청년』, 『신천지』, 『아성(我聲)』, 『신민공론(新民公論)』 등이 발간된다. 1922년에는 『동명(東明)』, 『조선지광(朝鮮之光)』, 『노동성(勞農聲)』, 『신생활』 등의 잡지들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언론 매체의 등장은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시대적 상황

에 따른 정보의 전달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제1차대전 중의 종식에 따른 후유증과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실이었다. 그러한 영향은 조선독립을 위하여 1918년 이동휘 등으로 하여금 하바로브스크에서 한국 사회당, 1920년엔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비밀결사체인 사회혁명당, 1921년엔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공산당의 전신인 고려공산당을 조직케 한다. 1926년에는 모스크바의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을 찾아 정식 승인을 받아오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영향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부르조아에 대한 저항 세력이었던 자생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이론을 학습한 유학생들은 귀국하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많은 지식인, 노동자, 농민들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가 활성화되면서 동아일보, 『개벽(開闢)』, 『공제(共濟)』, 『신천지(新天地)』 등의 언론 매체에서나 출판 관련 업체에서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서적들을 대량 발간하여 보급케 된다. 강연회나 단체 등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논쟁을 활발히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결과 민족주의 사상을 유지하려는 세력들과의 논쟁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초보적 단계, 자연발생적 단계의 신경향파에서 본격적 투쟁 단계인 카프를 결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 10여 년 간 사회주의 세력들이 한국문단을 지배하게 된다.

V. 에필로그

이 글에서는 1920년대 전후 일본의 시대적 현실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단 상황과 1920년대 전후 한국의 시대적 현실과 그에 따라 나타난 문단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프로 프로시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1차세계대전(1914) 등으로 경제적 번영과 함께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구조를 토대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大逆事件(1911), 지멘스사건(1914), 쌀소동 사건(1918), 다이쇼(大正)민주주의 운동(1919), 경제공황(1920), 관동대지진(1923)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사회주의동맹(1918), 일본사회주의동맹(1920), 일본노동총동맹(1921), 일본농민조합(1922), 코민테른 일본 지부 공산당(1922) 결성과 같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연계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일본문단은 사회주의 문학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봉건사회에서 탈피하여 근대화를 지향하던 명치기의 문학은 번역문학의 성행과 함께 戯作文學, 傳統詩歌, 歌舞伎 같은 문학에서 현실을 반영하려는 사실주의 문학을 지향하고 있었다. 서양문학의 이론 소개, 문학계몽, 언문일치 운동, 계몽사조, 번역문학의 성행, 정치소설 성행, 신체시 운동, 사실주의 소설론, 낭만주의 문학, 자연주의 문학 등을 제창하면서 문명개화란 현실 속에서 근대문학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학을 도덕이나 정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실주의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은 청일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팽창에 따라 나타난 암흑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개인의 해방을 지향면서 근대문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문단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민중예술론과 노동문학론의 대두다. 일본의 민중예술운동과 노동문학론은 프랑스의 클라르테 운동의 영향으로 창간된 고마키 오미의 『씨뿌리는 사람』(1920)으로 결실을 맺는다. 靑野季吉, 中野重治 등의 동인들은 세계주의 문예잡지를 표방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문단에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 문단은 계급적 성격을 지닌 프로문학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제는 朝鮮駐劄憲兵條例, 교통·통신·화폐제도·도량형

의 통일, 토지조사 등으로 자본주의 경제 지배체제를 갖추며 수탈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비밀결사 저항운동은 봉건 체제의 양반·유생(儒生) 등에서 도시의 중류층 이상의 신지식 계급으로 확산된다. 또한 국제적 상황으로 월슨은 현대문명의 결함을 사람의 양심적 타락 즉 유심적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레닌은 생산분배의 불평등 즉 유물론적 관점으로 해결하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현실이었다.

그러한 현실 상황은 민족의식의 자각 및 애국심 고취, 국문에 대한 자각, 교육과 지식, 인재 육성에서부터 점차 서구 시민혁명, 농민과 노동자의 문제 등 사회혁신 운동에 대한 인식으로 논제들이 달라지면서 문단의 흐름을 사회주의, 신문화 및 신문학 운동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러한 결과 1920년대 한국문단의 상황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과 시대정신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형편에서 한국의 자연발생적 프로시론은 1920년대 전후의 한국의 시대적 현실 상황과 문단의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다.

- 핵심어: 프로시론, 비교 문학, 시대정신, 카프, 신문학 운동

<Abstract>

A study of Formation background Korea Proletarian poetry

Hyun Chol-jong

This writing examines about formation background of Proletarian poetry with this comparing each other age, paragraph circumstance of Japan and Korea same time in comparative literature situation but there is purpose.

In Japanese occasion, at Proletarian, formation of theory indicates realism literature or naturalism literature that is wished to deliver literature from morality or politics and individual's releas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realization of modern literature at intention page.

In the case of Korea, circumstance of Korean paragraph tried to accommodate various thought and Zeitgeist including romanticism and symbolism in the 1920's.

At Korea's autogenesis Proletarian, theory appeared naturally along with social movement in Korea's period actuality circumstance and literary circumstance in the 1920's.

- key-word: Proletarian poetry, Comparative literature, Zeitgeist, KAPF, New literary movement